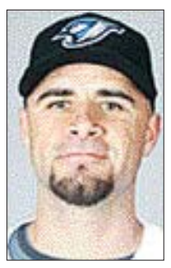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광주 - 동광주IC 구간 광역 통행료 환불
우천시 9홀 이후 홀별요금정산제 실시
예약 :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KIA '용병 농사' 실패

발데스 이어 결국 리마도 퇴출
ML 출신 투수 데이비드 영입



'리마 타임은 끝났다'

KIA 타이거즈가 3일 호세 리마를 퇴출시키고 메이저리그 출신의 투수 케인 토마스 데이비스(34·사진)와의 계약을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메이저리그 89승에 달하는 호세 리마는 올시즌 3승 6패, 4.89의 평균자책점을 남긴 채 쓸쓸히 KIA를 떠나게 됐다.

지난 5월 윌슨 발데스의 퇴출 이후, 위태롭게 자리를 보전하던 리마마저 작별을 고하면서 KIA 용병 농사에 또다시 암흑이 드리워졌다. 레스, 키퍼, 리오스, 그레이싱어 등의 투수 용병으로 재미를 봤던 KIA는 3년째 용병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투·타의 보강을 위해 영입했던 서튼(계약금 및 연봉 37만5천달러)과 에서튼(30만달러)은 시즌 초반 부상 등의 이유로 하차하면서 팀도 일찌감치 시즌을 마감했다. 2006년에도 서브넥(계약금 및 연봉 20만달러+α)과 스캇(21만달러)등 용병타자들은 부진을 거듭하다 시즌 도중 퇴출되기도 했다.

올 시즌도 역대 최고의 성적과 명성을 자랑하는 리마(계약금 및 연봉 27만5천달러)와 발데스(22만 5천달러)를 영입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용병 덕을 못 본 팀은 6위에 머물고 있다.

시범경기에서 펄펄 날면서 '흑종범'으로 까지 불렸던 윌슨 발데스는 시즌 개시와 함께 힘을 잃었다.

47경기에 나서 기록한 타율은 고작 0.218, 출루율도 0.263에 그쳐 자신의 기동성을 발휘할 여력이 없었다. 실책은 6개, 수비형 용병이라는 타이틀과 무색한 어이없는 수비가 속출하면서 팬들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천덕꾸러기 발데스를 놓고 고심하던 KIA는 결국 퇴출의 칼을 들었다.

퇴출설에 먼저 시달린 건 리마였다. 수비와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치더라도 명성과 걸맞은 실력발휘를 하지 못했다. 활발한 성격에 불펜 분위기를 띄우는 데 한 몫 했지만, 마운드에서의 기복이 심해 승보다 패가 더 많았다. KIA의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한국에서 은퇴하는 게 소원이라던 리마는 팀의 믿음을 얻지 못해 짐을 싸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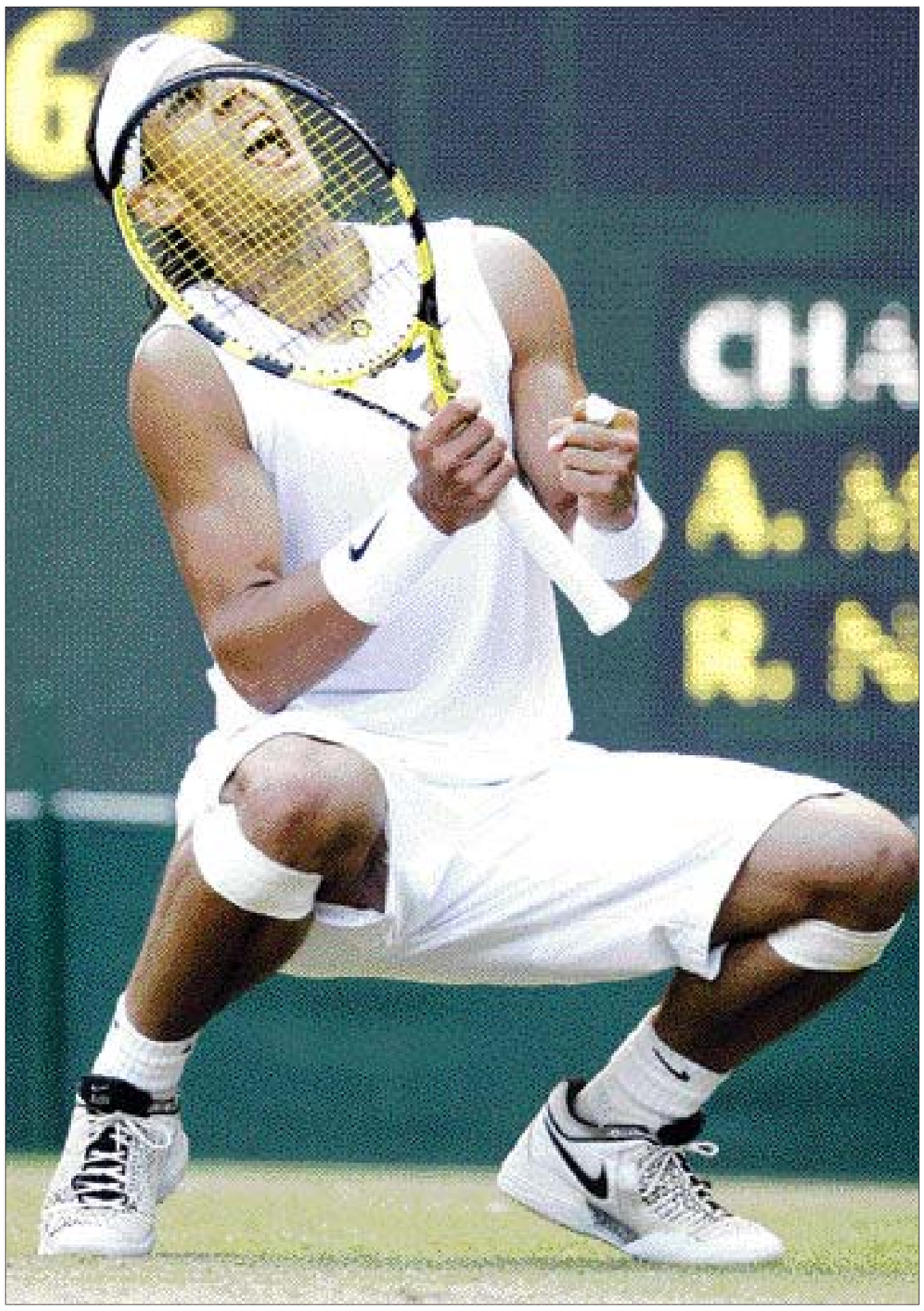
용병의 임무는 즉각적인 팀의 전력강화다. 하지만 3년째 KIA 용병들이 이렇다할 실력발휘를 하지 못하면서 용병 기용의 딜레마속에 전력 손실이 불가피했다. 외화 낭비도 만만치 않았다.

희망은 있다.

지난 6월 팀에 합류해 4경기에서 3.78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 디아즈가 빠른 적응을 보이고 있고, 새로 가세한 데이비스는 150㎞의 직구와 슬라이더·커브·싱커 등 다양한 변화구를 장착해 디아즈보다 한 수 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리마타임'을 종료 시킨 데이비스는 이번 주말 삼성전 첫 출격에 나선다.

KIA는 새로운 구축한 용병 시스템을 바탕으로 남은 시즌 한판 뒤집기에 들어간다. 전반적인 프로야구의 '투고타저'속에 새로운 투수 용병 스타가 탄생할지 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스페인의 라파엘 나달이 3일 영국 윔블던 올잉글랜드클럽에서 열린 윔블던 테니스대회 남자단식 8강에서 영국 앤디 머레이를 꺾고 4강에 올라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찬호 선발 복귀 가능성

경쟁자 커쇼 마이너리그행
올스타전 후 선발진 재편

연일 '부활 역투'를 펼치고 있는 박찬호(35·LA 다저스·사진)의 선발 복귀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프로야구 LA 다저스는 3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좌완 선발 클레이튼 커쇼(20)를 마이너리그 더블 A 잭슨빌 선스로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커쇼는 메이저리그에서 8번 선발로 나와 38과 3분의 2이닝 동안 2패(평균자책점 4.42) 성적을 남겼다. 구단은 어깨 부상으로 부상자명단(DL)에 올라있던 선발 구로다 히로키와 브래드 페니의 복귀를 앞두고 커쇼를 마이너리그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조 토레 감독은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커쇼가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지만 커쇼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고 불만스러워했다.

이에 따라 다저스는 '데릭 로-에릭 스털츠-구로다-채드 빌링슬리-페니'로 이어지는 5인 선발 체제를 운용하게 됐다.

다저스가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선발진 재편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4승2패1세이브(평균자책점 2.45)의 성적을 올린 롱 릴리프 박찬호도 올스타전 전후로 선발진에 가담할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진 셈이다.

페더러 대회 6연패 향해 순항

윔블던테니스 단식 4강행
나달도 머레이 꺾고 합류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1위·스위스)가 시즌 세 번째 메이저대회인 윔블던 남자단식 준결승에 진출했다.

페더러는 3일(한국시간) 영국 윔블던 올잉글랜드클럽에서 열린 대회 9일째 남자단식 8강에서 마리오 안치치(43위·크로아티아)를 3-0(6-1 7-5 6-4)으로 가볍게 따돌리고 이 대회 6년 연속 우승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그랜드슬램 대회 17회 연속 단식 4강에 오르는 기록을 이어나간 페더러는 마라트 사핀(75위·러시아)과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됐다. 안치치는 2002년 윔블던 1회전에서 페더러를 3-0으로 완파했던 복병이다.

페더러의 4강 상대 사핀은 펠리치아노 로페스(35위·스페인)에 3-1(3-6 7-5 7-6 〈1〉 6-3) 역전승을 거뒀다.

올해 프랑스오픈 여자단식 준우승자 디나라 사피나의 친오빠인사핀은 2000년 US오픈, 2005년 호주오픈 우승자로 2000년에 세계 1위까지 올랐었다.

2005년 호주오픈 준결승에서 페더러를 꺾는 등 상대 전적 2승8패를 기록하고 있는 사핀은 "랭킹 75위가 네 경기를 이기고 페더러에 도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준결승에 나가지만 이긴다는 생각은 없다"고 몸을 낮췄다.

페더러의 대항마로 꼽히는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도 4강에 합류했다.

나달은 앤디 머레이(11위·영국)를 3-0(6-3 6-2 6-4)으로 꺾었다. 1936년 프레드 페리 이후 72년만에 영국인 윔블던 챔피언을 고대했던 홈 팬들은 올해도 고개를 숙여야 했다.

나달은 아너드 클라망(145위·프랑스)-라이너 슈틀러(94위·독일) 전 승자와 4강에서 맞붙는다. 클라망과 슈틀러는 세트스코어 1-1에서 일몰로 경기를 끝내지 못했다.

"이승엽 올림픽 가자"

KBO, 참가 설득위해 일본행
추신수·임창용은 구단서 반대

이승엽(32·요미우리 자이언츠·사진)과 추신수(26·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베이징올림픽 대표팀 참가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날 전망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일 이상일 총괄본부장이 이승엽의 대표팀 참가를 설득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요미우리 2군 경기장이 있는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서 이승엽을 만나 베이징올림픽 야구 대표팀 참가를 강력하게 권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엽의 대표팀 참가 여부는 본인 의지에 달려있다. 하라 다쓰노리 요미우리 감독은 지난 3월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승엽을 8월에 (올림픽에) 출전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이승엽도 당시엔 "나라와 나 자신을 위해서 꼭 (베이징에) 가고 싶다"고 출전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후 극심한 타격 부진에 시달린 끝에 2군에 내려간 이승엽이 '폐를 끼치기 싫다'며 출전을 고사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미국으로는 박정근 KBOP 팀장이 떠났다. 추신수는 대표팀 참가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지만 구단이 놔주질 않는다는 게 문제다.

메이저리그와 국제야구'연맹(IBAF)이 8월1일자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포함된 선수는 베이징올림픽 대표팀에서 제외하기로 약속한 가운데 추신수가 대표팀에 참가하려면 마이너리그로 내려가는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메이저리그 규약상 추신수가 마이너리그에 내려갈 경우 자유계약선수(FA)로 신분이 바뀌며 다른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 때문에 구단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창용(32·야쿠르트 스왈로즈)은 구단의 반대로 대표팀 참가가 어렵게 됐다.

오쿠무라 마사유키 야쿠르트 국제담당과장은 3일 "우리 구단은 임창용 말고는 마무리 투수가 아무도 없는 실정"이라며 임창용을 올림픽에 내보내기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KBO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임창용 본인도 구단의 입장을 전해듣고 '유감이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펠프스 접영 200m도 우승

미국 수영대표 선발전 3관왕
올림픽 3개 종목 출전권 획득

'수영황제' 마이클 펠프스(23·사진)가 베이징올림픽 미국 수영대표 선발전에서 접영 200m도 우승하며 3개째 출전권을 따냈다. 펠프스는 3일 오전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남자 접영 200m 결승에서 1분52초20으로 가장 먼저 골인했다.

첫날 개인혼영 400m와 셋째날 자유형 200m에서 우승한 펠프스는 이로써 세번째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했다. 기록도 좋았다. 자신이 갖고 있는 1분52초09의 세계기록에 0.11초 밖에 느리지 않았고 2위인 길 스토벌(1분53초86)도 여유있게 따돌렸다.

펠프스는 자유형 100m 예선에도 출전해 47초92를 기록하며 47초78로 가장 좋은 기록을 낸 가렛 웨버게일에 이어 2위로 통과했다. 펠프스의 이 기록은 세계에서 여섯번째로 빠른 기록이다. 펠프스는 하지만 이어 열린 이 종목 준결승에는 출전하지 않았다. 펠프스가 자유형 100m에 나선 것은 올림픽에서 계영 400m 영자로 뽑히기 위해서였는데 예선에서 자신의 목표 기록을 이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베이징에서 8관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영 종목에 출전해 최소 2개의 금메달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 계영 800m의 경우 자유형 200m 세계기록을 갖고 있어 출전에 문제가 없고, 혼계영 400m도 자신이 세계기록을 보유한 접영 100m 영자로 출전할 수 있다.

'여자 펠프스' 케이티 호프(19)는 여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55초88로 우승한 뒤 곧바로 이어진 개인혼영 200m 결승에서도 2분09초71로 가장 먼저 골인했다.

첫날 개인혼영 400m에서 세계 기록을 작성하고 둘째날 자유형 400m도 우승한 호프는 이로써 올림픽 출전권을 4개나 차지했다.